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1.14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원/달러 환율

1466.4원 (+0.70원)

KOSPI

4,170.63 (+44.00, +0.49%)

KOSDAQ

918.37 (+11.86, +1.31%)

국고채 10년 금리

3.267 (-0.01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미국 산업재	중국 자가에 국영기업 다니는 희토류 이야기 [김시현]

기업분석

SBS	이 정도로 부진한 광고 업황만 아니었다면 [이기훈]
한국전력(상향)	연결과 별도 모두 분기 최대 실적 기록 [유재선]
SK이터닉스	기다려온 성장은 4분기부터 본격화 [유재선]
HMM	3Q25 Re: 벌크선/유조선의 감익 완화 효과 기대 중 [안도현]

산업분석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 [김록호]

Weekly

통신	이제 장비주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김홍식]
유틸리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KB금융, 하이브, S-Oil,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엔씨소프트, 롯데웰푸드, 지역난방공사, 디아이, RFHIC, 인투셀

하나증권

2025년 11월 14일 | 글로벌 리서치

희토류

중국 자가에 국영기업 다니는 희토류 이야기

미국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1월 12일

MP 머티리얼즈(MP.US)
시장 TP 81.46 USD | CP 59.72 USD

USA 레어어스(USAR.US)
시장 TP 22.75 USD | CP 16.92 USD

에너지퓨얼스(UUUU.US)
시장 TP 22.39 USD | CP 15.82 USD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주목 필요한 이유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는 자세히 보면 여전히 미국에 위협적이다.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년간 희토류 수출 지속을 약속했다"고 발언해 미국 희토류 밸류체인은 전반적인 주가 조정을 경험했다. 대표 기업 3사(MP/USAR/UUUU)는 10월 고점 대비 평균 약 45% 하락했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했지만 11월 7일, 중국 상무부에서 해관총서 70호를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유예한 규제의 대상을 10월 9일의 규제로 한정하며 4월 4일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0월 규제는 0.01%라도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4월 규제는 중(重)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네오디뮴 자석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Mountain Pass 광산은 경희토류형으로 여전히 중희토류 밸류체인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프렌드쇼어링 전략 활용하고 자국 내 투자 지속할 전망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0%이며 미국 역시 수입의 7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 관점에서 호주, 일본 등 우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적극 체결하며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자국 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상무부와 전쟁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미국 NeFeB 자석 수요 대비 단기적인 밸류체인 자립은 현실성이 낮다. 미국 주로 전기차와 *해상풍력* 터빈 수요로 2030년까지 3.7만톤의 NeFeB 자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 가시적인 자국 캐파는 보수적으로 1천톤 수준에 불과하며 램프업을 감안하더라도 완전 자립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자국 밸류체인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MP 머티리얼즈(MP.US), 10월 1일부터 전쟁부와 PPA 시작

전쟁부의 직접 투자에 더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MP 머티리얼즈(MP.US)를 Top-pick으로 선정한다. 미국은 희토류, 리튬 등 핵심 광물 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6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Mountain Pass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MP 머티리얼즈의 잠재지분 15%를 확보했으며 NdPr 가격 하한 약정을 당시의 약 2배 수준인 110달러/kg로 체결했다. 10월 1일부터 전쟁부와 장기 PPA를 시작해 본격적인 실적 상승 구간에 진입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외에도 영국 LCM 인수로 end-to-end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진 USA 레어어스(USAR.US), 이르면 4Q26까지 중희토류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퓨얼스(UUUU.US)를 관심종목으로 제시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SBS (034120)

이 정도로 부진한 광고 업황만 아니었다면

BUY (유지)

목표주가(12M)	27,000원
현재주가(11.13)	19,8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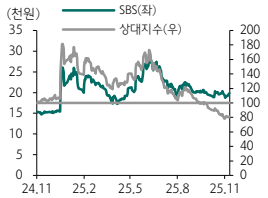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170.63
52주 최고/최저(원)	29,200/14,740
시가총액(십억원)	367.7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18,551.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1.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지분율(%)	
티와이홀딩스	36.32
국민연금공단	10.8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55.8	1,021.0
영업이익(십억원)	29.3	47.0
순이익(십억원)	24.3	38.8
EPS(원)	1,186	1,994
BPS(원)	50,045	51,96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996.8	1,046.7	973.5	994.8
영업이익	58.3	(19.2)	32.1	47.7
세전이익	61.6	19.4	42.2	60.7
순이익	46.3	33.8	32.0	46.0
EPS	2,534	1,824	1,723	2,479
증감율	(69.68)	(28.02)	(5.54)	43.88
PER	11.54	12.14	11.50	8.00
PBR	0.62	0.45	0.39	0.38
EV/EBITDA	4.67	21.38	4.37	2.98
ROE	5.45	3.80	3.47	4.81
BPS	47,379	48,746	50,490	52,649
DPS	500	0	350	50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TV광고만 아주 조금 반등해주면 이익 베타는 상당히 높다

2023년~2024년 광고 매출이 각각 -22%/-17%를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도 -20%를 기록하고 있다. TV광고 업황이 디지털 대비 좋을 리 없겠지만, 그래도 2022년 대비 3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작년 수준의 업황만 유지되었어도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했다. TV광고 업황이 딱 한 번만 소폭 반등해준다면 분기 영업이익 200억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예상 P/E 8배 수준의 현 주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3Q Review: OP 130억원(흑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392억원(-28% YoY)/130억원(흑전)으로 컨센서스(110억원)를 상회했다. 별도 영업이익은 94억원(흑전)으로 좋았는데, TV광고가 450억원(-26%)으로 1분기(-13%), 2분기(-19%)에 이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한 업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CJ ENM이 연간으로 TV광고 업황 전망을 약 -20%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 콘텐츠의 차별화가 다소 무의미해지는 만큼 4분기에도 -10% 내외의 광고 업황이 예상된다. 다만, 협찬에서 184억원(+33%)으로 선방했으며, 넷플릭스향 글로벌 드라마(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판매가 첫 반영되면서 온라인수익이 422억원(+195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선방했다. 또한, 광고가 부진하며 광고대행수수료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분기 10억원 내외의 비용 절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TV광고 업황이 2024년 수준이었다면 연간 OP 600억원도 충분히 가능

별도 TV광고 매출이 3분기 누적으로 -20%를 기록했는데, 35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 중 광고대행수수료 정도를 제외하면 본업에서만 300억원 이상의 이익 감소를 의미하는데, 만약 올해 광고 업황이 2024년 수준만 유지되었다면 3분기 누적으로 이미 4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임을 감안하면 연간 600억원의 영업이익 전망은 충분히 달성 가능했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넷플릭스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분기에 첫 넷플릭스향 글로벌 드라마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4분기에는 <키스는 괜히 해서!>와 오리지널 <당신이 죽였다>가 각각 1편씩 반영된다. 이 외 <우주메리미>는 디즈니로, <모범택시3>는 동남아 viu로 판매되면서 매우 부진한 광고 업황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년 드라마 제작부터는 넷플릭스와 공동 제작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기에 콘텐츠 성과 및 판매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전력 (015760)

연결과 별도 모두 분기 최대 실적 기록

BUY (유지)

목표주가(12M)	65,000원(상향)
현재주가(11.13)	49,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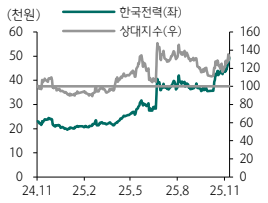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170.63
52주 최고/최저(원)	49,550/19,560
시가총액(십억원)	31,616.7
시가총액비중(%)	0.92
발행주식수(천주)	641,96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532.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7.2
외국인지분율(%)	22.35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외 2 인	51.14
국민연금공단	7.9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7,089.8	98,848.1
영업이익(십억원)	13,964.7	16,429.4
순이익(십억원)	8,186.8	9,846.4
EPS(원)	12,456	15,009
BPS(원)	73,496	87,18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8,219.5	93,398.9	97,563.9	97,877.2
영업이익	(4,541.6)	8,364.7	15,014.4	17,875.6
세전이익	(7,554.0)	5,256.5	12,894.6	15,222.5
순이익	(4,822.5)	3,491.7	9,206.9	11,416.8
EPS	(7,512)	5,439	14,342	17,784
증감율	적지	흑전	163.69	24.00
PER	(2.52)	3.69	3.43	2.77
PBR	0.34	0.32	0.66	0.54
EV/EBITDA	16.95	6.48	5.43	4.74
ROE	(12.63)	9.22	20.88	21.45
BPS	55,837	62,177	75,181	90,666
DPS	0	213	2,300	2,5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65,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65,000원으로 기존대비 18.2%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6년 예상 BPS에 목표 PBR 0.7배를 적용했다.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다만 영업비용 기타 항목에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이익 창출능력은 훨씬 견조한 상황이다. 여름철 성수기 SMP는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했으며 4분기 들어서도 추가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율 상승 영향을 감안해도 유가 약세로 당분간 낮은 SMP 레벨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 PER 2.8배 PBR 0.5배다.

3Q25 영업이익 5.7조원(YoY +66.4%)으로 컨센서스 부합

3분기 매출액은 27.6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전력판매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했고 판매단가는 4.7% 상승했다. 산업용 판매량이 9월 판매 호조로 3년만에 감소 구간에서 벗어났으나 수요 이탈 가능성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다. 영업이익은 5.7조원으로 전년대비 66.4% 개선되었다. 연료비는 18.2% 감소한 5.5조원, 구입전력비는 4.1% 감소한 9.2조원을 기록했다. 연료비는 유연탄 발전량 증가에 따른 석탄 비용 증가에도 발전자회사 LNG 발전량 감소로 개선되었다. 구입전력비는 기저발전 비중 상승과 SMP 하락으로 외부 구입량이 감소하며 증가했다. 원자력 이용률은 77.4%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6%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연탄은 68.9%로 전년대비 8.9%p 개선되었다. 원전 이용률 하락을 발전자회사와 민간 석탄 이용률 상승으로 만회했다. 예방정비 일정에 따라 4분기 원전 이용률은 7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비용에서 기타 항목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별 발전자회사의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도 당기순이익 증가. 배당성향만 뒷받침된다면 재평가 가능

LNG 연료비단가는 10월, 11월 연속 전월대비 4% 가량 하향세를 나타냈다. 유연탄 가격도 100달러/톤 초반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어 부담이 없다. 올해 하반기 유가와 환율 추이를 감안하면 2026년 1분기 SMP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낸 후 2분기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 개선과 별도 배당금 수취 증가로 별도 당기순이익은 뚜렷하게 개선된 상황이다. 토지 매각 관련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2015년을 제외할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 금리 상승과 한전채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나 과거 2022년~2023년 당시 높은 금리 대비로는 부담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차입금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영업실적 호조로 점진적 부채비율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남은 4분기 실적과 배당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SK이터닉스 (475150)

기다려온 성장은 4분기부터 본격화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000원(유지)
현재주가(11.13)	19,2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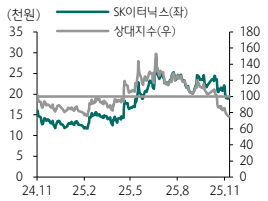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170.63
52주 최고/최저(원)	28,900/11,700
시가총액(십억원)	650.4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33,754.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3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7
외국인지분율(%)	4.07
주요주주 지분율(%)	
SK디스커버리 외 2 인	31.06
한앤코더블유피홀딩스 유한회사	12.52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66.3	651.1
영업이익(십억원)	45.5	77.3
순이익(십억원)	35.8	49.2
EPS(원)	1,059	1,458
BPS(원)	8,225	9,68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0.0	332.2	380.6	540.9
영업이익	0.0	37.6	55.6	81.6
세전이익	0.0	27.5	49.3	67.8
순이익	0.0	22.4	40.4	51.6
EPS	0	811	1,198	1,529
증감율	N/A	N/A	47.72	27.63
PER	0.00	14.86	16.09	12.60
PBR	0.00	1.68	2.30	1.95
EV/EBITDA	0.00	10.74	12.78	9.71
ROE	0.00	9.25	15.43	16.77
BPS	0	7,193	8,362	9,892
DPS	0	0	0	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28,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SK이터닉스 목표주가 28,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3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확대와 전년동기 기저효과 때문이다. 매출이 집중되는 4분기에는 분기 최대 매출 실적 및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연내 태양광 개발용역 1건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분기 평균 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판단된다. 연료전지는 4분기에 40MW 규모 준공과 개발수익 인식이 예상되며 해상풍력에서 연내 가시적 성과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 PER 12.6배, PBR 2.0배다.

3Q25 영업이익 12억원(YoY -91.9%) 기록

3분기 매출액은 464억원으로 전년대비 71.0% 감소했다. 2024년 3분기 칠곡에코파크, 약목 연료전지 프로젝트 인도로 인한 매출 증가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부문별로 에너지 383억원, ESS 81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에서 풍력은 군위풍백 공정진행, 제주가시리 발전 매출 등의 영향으로 342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현재 진행률로 인식하는 풍력 프로젝트 잔고 잔여분에 더해 40MW 충주연료전지 인도 일정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가파른 성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태양광은 솔라닉스 개발용역 3호 112억원에서 지난 2분기 실적에 인식한 88억원을 제외한 부분을 반영했다. 솔라닉스 4호는 제주 위미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솔라닉스 5호가 4호보다 이른 시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규모가 확대될 경우 매출과 이익도 그만큼 개선될 수 있다. 연료전지와 ESS도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영업이익은 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1.9% 감소했다. 일회성 비용은 없었으나 전반적인 매출 규모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마진 둔화가 나타났다. 세전이익은 이자비용에 더해 환율 상승으로 기자재 수입분의 외화환산손실이 확대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개발 및 매각 중심의 비즈니스. 이익 레버리지 극대화 기대

최근 공시와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최대주주가 SK이터닉스 지분 매각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계열사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태양광 구조화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익 창출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솔라닉스 사업이 연내 2개 프로젝트에서 4개까지 수행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규모도 확대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이다. 기다려오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이익 수취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있는 연료전지 인도 예정 물량, BESS 입찰에서의 성과 등을 감안하면 4분기부터 호실적이 확인될 전망이다.

HMM (011200)

3Q25 Re: 벌크선/유조선의 감익 완화 효과 기대 중

Neutral (유지)

목표주가(12M)	21,000원
현재주가(11.13)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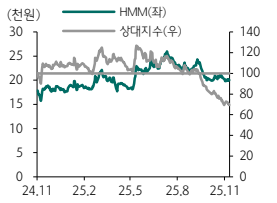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170.63
52주 최고/최저(원)	25,950/17,020
시가총액(십억원)	18,864.8
시가총액비중(%)	0.55
발행주식수(천주)	943,23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75.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8.5
외국인지분율(%)	6.73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35.42
한국해양진흥공사	35.0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0,541.6	9,835.3
영업이익(십억원)	1,349.2	821.0
순이익(십억원)	1,861.7	1,170.6
EPS(원)	1,938	1,241
BPS(원)	28,806	29,72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401.0	11,700.2	10,746.7	9,983.8
영업이익	584.8	3,512.8	1,431.7	904.8
세전이익	1,054.3	3,896.6	2,000.9	1,227.0
순이익	968.6	3,782.2	1,869.3	1,121.7
EPS	1,829	5,055	2,122	1,189
증감율	(91.16)	176.38	(58.02)	(43.97)
PER	10.71	3.49	9.43	16.82
PBR	0.63	0.56	0.65	0.70
EV/EBITDA	3.29	0.95	2.67	3.78
ROE	4.59	15.35	6.89	4.24
BPS	31,115	31,615	30,550	28,638
DPS	700	600	600	6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3분기 영업이익 2,968억원(-80% (YoY))로 컨센서스 부합

3분기 HMM의 매출액은 24% (YoY) 감소한 2조 7,064억원, 영업이익은 80% 감소한 2,968억원(영업이익률 11.0%)을 기록하며 컨센서스와 당사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컨테이너선 매출액은 27% (YoY) 감소했는데, BSA(Basic Slot Allocation, 수송가능선복량)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나, 운임 하락(-38%)과 적취율 하락(-6.1%p)이 더 크게 작용했다. 컨테이너선 사업부 영업이익은 80% (YoY) 감소한 2,875억원(영업이익률 12.3%)를 기록했다. 3분기 벌크선 사업부 매출액은 1% (YoY) 감소한 3,160억원, 영업이익은 일회성 일반관리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86% 감소한 45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전체 영업비용은 15% (YoY) 증가했는데, BSA 증가와 단가/환율 상승 영향으로 항화물비가 17% 증가했고, 감가상각비도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벌크선/유조선의 감익 완화 효과 기대

SCFI는 10월 국경절 이후 미주 노선 위주의 단기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주 노선 위주 공급 조절이 된 상황에서 국경절 간 이연된 선적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급 조절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컨테이너선 연말 비수기에 진입하고 있고, 미-중 간 입항료도 유예되며 미주 노선으로 중국 선박이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그래도 벌크/유조선 시황 전망은 밝다. 벌크선 운임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최근 VLCC 스팟 가격이 $10만/day까지 상승했다. HMM의 원유선 14척 중 스팟 노출도는 30%로 높지 않으나, 컨테이너선 시황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4분기 매출액은 19% (YoY) 감소한 2조 5,630억원, 영업이익은 71% 감소한 2,890억원(영업이익률 11.3%)으로 예상한다.

추가 공급 조절은 쉽지 않을 전망

3분기 평균 적취율이 65.3%로 큰 폭 하락했는데, 헤드홀 적취율은 YoY/QoQ 유지되었으나, 백홀 물량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로도 공급 조절 시도는 계속되겠으나, 2026년에도 컨테이너 선복량이 5% (YoY)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 만큼 공급 조절과 GRI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HMM도 실적은 감익이 예상되나, 주가는 13조원 유동성에 기반한 추가 주주환원을 기다리며 지지되는 모습이다. 비컨테이너 선박 자산 취득 또는 터미널 사업 참여 등 실적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는 현금 사용을 기대한다. HMM에 대해 투자의견 Neutral 과 목표주가 21,000원을 유지한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1월 13일

삼성전자(005930)

BUY I TP 140,000원(상향) I CP 102,800원

SK하이닉스(000660)

BUY I TP 850,000원(상향) I CP 612,000원

4Q25 및 1Q26 메모리 가격 상향

DRAM 및 NAND의 가격 가정을 상향 조정한다. 서버 중심의 강한 수요로 인해 서버향 DRAM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서버향 공급 확대로 인해 모바일 및 PC DRAM 부문의 공급이 축소되면서, 해당 전방산업향 DRAM 가격의 상승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DRAM, NAND의 전분기대비 가격 상승폭은 각각 19%, 13%로, SK하이닉스는 각각 11%, 12%로 가정한다. DRAM 가격의 상승폭이 상이한 이유는 SK하이닉스의 HBM 매출비중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DRAM 가격의 상승폭에 의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수기인 26년 1분기의 DRAM 가격 상승폭을 기존에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로 가정했었는데, 모바일 및 PC 세트 업체들의 주문 상황이 예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어 한 자릿수 후반대로 상향한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재차 상향

가시성 높은 25년 4분기 및 26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을 상향 조정하며,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역시 재차 상향한다. 삼성전자는 95.8조원, SK하이닉스는 77.3조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각각 9.6%, 10.1% 상향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이익을 상향한 반면에 모바일 부문의 이익은 하향 조정한다. 이는 원가 부담 확대로 인해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HBM4 가격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 부분을 감안해 HBM의 가격을 기존대비 상향 조정한다. 두 업체의 합산 영업이익은 1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합산 시가총액 1,058조원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두 업체 모두 목표주가 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각각 140,000원, 850,000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6년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 HBM4 경쟁력 입증을 반영해 HBM에 대한 가치 산정시 멀티플을 파운드리 평균 EV/EBITDA 8.5배로 변경했다. 지난 보고서에서 HBM에 대한 가치 평가를 별도로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금번 보고서에서 목표주가 산정시 실제로 접목했다. HBM의 공급 형태나 계약 조건이 파운드리와 유사한 구조이고, 해당 제품의 수익성 또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멀티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향후에도 메모리 가격 상향에 따른 실적 상향 여력은 상존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적 상향 조정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주가 역시 이에 동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Analyst 김록호_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이제 장비주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통신 이슈/전략 Weekly | 2025.11.14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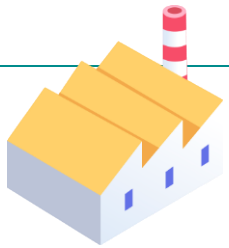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EU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0년에도 EU는 5G 네트워크 툴박스라는 지침을 마련해 회원국들이 보안 위험이 있는 업체(화웨이/ZTE)를 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격상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를 발동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EU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한다. 이 같은 조치는 EU의 핵심 인프라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스페인과 그리스 등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EU 집행부의 강경 발언을 감안 시 점차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중국산 장비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마도 6G부터는 중국 장비가 EU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보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호재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국내 통신장비업체들의 M/S가 급상승 중이다. 미국의 중국산 부품 제재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인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부품/장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삼성전자가 유럽 통신 시장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릭슨/노키아가 중국 부품/장비 대신 국내 부품/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향후 6G로 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 논의가 활발하다. 5G의 실패로 6G가 당초 예상했던 2030년보다 조기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성공을 위해 서서히 5G SA로의 전환과 더불어 Realese18(5.5G)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6G로 진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다수의 포럼에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AI의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주 들린다. 한마디로 엣지 컴퓨팅 도입이다. 즉 데이터센터의 AI 처리 능력을 네트워크 말단(엣지)으로 분산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AI 연산을 수행해 지연을 줄이고 네트워크 중심부로 몰리는 트래픽을 분산함으로써 로봇/자율차 등 디바이스가 데이터센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산업 영역에서 수요 창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AI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략 설비 구축이 활발하며 광통신에 이어 5G/6G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국내 통신장비 업체 실적이 모두 발표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의 주가와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업체간의 주가 차별화 현상이 과거와 달리 심하지 않다. 분기 실적보단 2026~2030년 장기 실적 호전 가능성에 투자가들이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 흐름으로 보면 아마도 다음주부터는 통신장비주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분기 실적 부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악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노와이어리스/쏠리드 같은 업체들의 경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호전 양상이 나타날 것이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엔 4분기에도 영업적자 양상을 지속하겠지만 2026년 3월에나 실적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보면 더 이상 분기 실적에 연동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11월 안에 미국에서 고시 제정을 통해 어퍼 C밴드 주파수 180MHz(3.98~4.2GHz 총 220MH중 인접 주파수 40MHz 제외 기준)가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2028년까지 총 800MHz 대역 할당이 예고된 가운데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곧 경매로 나올 것으로 보여 통신장비 업종 빅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으로 제시한다. KT 장기 저점 매수가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 통신장비주의 경우엔 RFHIC/KMW/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RF머트리얼즈/ICTK/우리넷을 추천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유틸리티 Weekly | 2025.11.14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1.6% 상회했다. 12일 종가 기준 WTI는 59.3달러/배럴(WoW -1.8%), 미국 천연가스는 4.5달러/mmbtu(+6.8%), 아시아 LNG 현물은 11.1달러/mmbtu(-0.2%), 호주산 유연탄은 109.5달러/톤(-0.4%), 원/달러 환율은 1,469.4원(+2.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약세가 경계할 수준까지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른 모든 지표는 양호하다.
- 2023년 4월에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정지했던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이 원안위에서 의결되었다. 9월 25일, 10월 23일 두 번의 연기 끝에 통과된 안건이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까지 계속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4년 9월 고리 3호기, 2025년 8월 고리 4호기가 가동을 정지했고 12월에는 한빛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을 정지할 예정이다. 앞서 10년 수명연장이 이뤄졌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이후 각각 2017년, 2019년에 폐로가 결정되었지만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후속 원전들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가동이 담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민간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 통계 누락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정된다. 과잉 할당 물량 2,520만톤을 조정하면서 과다 배정된 배출권을 회수한다. 2,520만톤 대부분 발전자회사에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회수의 경우 2026년 8월, 분할 회수의 경우 매년 8월에 보유 배출권 반납, 부족분 구매, 4기 할당계획 할당량 삭감 등으로 이뤄진다. 제4차 계획기간에서 유상할당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1년 일괄 회수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13일 KAU25 종가는 10,550원이지만 단기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변할 여지가 있다. 과잉 할당 2,520만톤에 톤당 1.5만원을 가정하면 노출된 비용은 약 3,800억원 가량으로 기후환경요금 환산 0.7원/kWh 수준이다.
- 종목별로 보면 한국전력은 전주대비 6.8% 상승했다. 양호한 실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나타냈다. 12월 22일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될 예정이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결 가능성이 높아 오해에 기반한 주가 하락이 나타날 여지가 존재한다. SK이터닉스는 전주대비 2.1% 하락했다. SK그룹의 재생에너지 자산 구조조정 이슈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까지 확인되며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 파이프라인을 감안하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종목

- 지역난방공사: 비수기 실적 개선 확인. 4분기도 양호한 추세 기대. 남은 퍼즐 조각은 배당성향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11/13)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4,170.63	3.6	1.5	5.8	11.2	23,082	(16,516)	(5,573)
한국전력	49,250	6.8	15.7	13.7	15.3	528	(411)	(192)
한국가스공사	42,150	(0.1)	1.1	(1.1)	4.2	(4)	160	(152)
SK가스	265,000	(1.1)	1.7	12.3	13.0	(35)	39	0
E1	82,600	8.1	10.4	11.3	14.2	41	1	(41)
SK이터닉스	19,270	(2.1)	(7.4)	(9.3)	(18.0)	(31)	(7)	36
SGC에너지	23,100	3.8	2.2	(0.6)	0.7	2	9	(12)
지역난방공사	109,100	11.0	14.0	16.1	23.7	(5)	38	(33)
한전기술	95,200	1.0	(6.8)	(13.0)	(2.6)	(59)	(6)	52
한전KPS	52,500	5.2	3.6	0.2	5.3	88	49	(134)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B금융 (105560.KS)	11/10	123,700	133,500	7.92%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율 약 53% 수준
하이브 (352820.KS)	11/10	305,500	304,000	-0.49%	•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1/10	74,400	86,300	15.99%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61390.KS)	11/10	49,350	59,700	20.97%	• 3Q25 Review 매출액 5.4조원(YoY +122.3%), 영업이익 5,860억원(YoY +24.6%) 기록 • 미국발 고율 관세 영향에도 불구, 고수익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
엔씨소프트 (036570.KS)	11/10	221,000	233,000	5.43%	• 11월 19일 핵심 기대작 '아이온2 한국/대만 출시. 글로벌은 26년 하반기 출시 예정 • 2026년 신작 3종과 IP 스핀오프 4종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롯데웰푸드 (280360.KS)	11/10	124,900	122,700	-1.76%	•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실적 부진은 3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 4분기부터, 기저효과 및 원가 부담 완화 등 기인해 유의미한 실적 개선 전망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0	108,600	109,100	0.46%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디아이 (003160.KS)	11/10	23,250	26,400	13.55%	• 3Q25 Preview 매출액 924억원(YoY +70.2%), 영업이익 83억원(YoY 흑자전환) 전망 • HBM4 신규 장비 퀄 통과, 본격 수주 단계 진입 기대
RFHIC (218410.KQ)	11/10	34,000	31,850	-6.32%	• 11월 FCC(연방무선위원회)에서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 논의 예정 • 역사적 Multiple 추이, 현재 통신 장비 업황을 감안하면 현재 PBR/PER이 너무 낮은 수준
인투셀 (287840.KQ)	11/10	55,000	57,400	4.36%	• 11월 24일 에피스 상장을 앞두고 프로덕트 딜 가능성 상승 • 연내 파트너사와 본계약 및 '26년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른 추가 L/O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92%	+0.52%p	+62.15%	+5.0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6,300	1.35%	•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 • 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
한미약품 (128940.KS)	11/3	425,000	483,000	13.65%	• 에페글레나타이드 결과 발표, 세마글루타이드와 비견할 수준의 효과와 부작용 • 25년 내 약속한 IND 신청 두 건 모두 진행 완료(HM15275, 17321)
엘앤에프 (066970.KS)	10/27	133,600	141,600	5.99%	• 한국의 NCM 수출 회복 흐름 감안 시,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높아 • 95% 니켈 NCM 양극재 공개, 공매도 숏커버링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612,000	31.47%	•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21,500	5.23%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304,000	11.56%	•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02,800	22.5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33,500	15.58%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율 약 53% 수준
한화오션 (042660.KS)	10/1	110,300	130,500	18.31%	• 건조 Mix 개선과 원가 안정화를 통한 경상적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 진출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77,000	22.07%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6,300	38.30%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03%	-4.10%p	+62.17%	+5.0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5,135	23.15%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810	37.00%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625	19.59%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7,270	78.22%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AIQ (글로벌 AI 기술 관련 기업)	2025.09.19	49.14	51.58	4.97%	• AIQ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 등 AI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Global X의 AI 테마 ETF. 다른 AI 테마 ETF들 대비 AI 본연의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은 종목 •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심의 투자 모멘텀 지속 영역.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성장 기대 유효한 영역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5.86	11.95%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URA (미국 우라늄 주식)	2025.06.16	38.07	47.64	25.14%	• 글로벌 우라늄 생산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 편입하는 ETF •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소모 증가, 탄소중립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수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SMR(소형모듈 원자로)을 중심으로 원전 테마의 주가 모멘텀 기대 유효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5.59	13.81%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 BOJ 10월 금정위 요약본	▪ 유로존 11월 ZEW 경제 성장예상 (25.0P, 10월 22.7P)	▪ 한국 10월 실업률 (2.6%, 9월 2.5%)	▪ 영국 3분기 GDP P (E --, 2분기 1.4%)	▪ 중국 10월 광공업생산 (E --, 9월 6.5%) ▪ 중국 10월 소매판매 (E --, 9월 3.0%) ▪ 중국 10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E --, 9월 -0.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일본 3분기 GDP P (-2.1%, 2분기 2.2%)	▪	▪ 영국 10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9월 3.8%/3.5%)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9월 2.2%/2.4%)	▪ 미국 10월 FOMC 의사록	▪ 유로존 11월 HCOB 제조업 PMI P (E --. 10월 50.0P) ▪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F (E 50.3P, 10월 51.6P)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